

KB국민, 부동산 플랫폼 'KB부동산'으로 새 출발

KB국민은행이 24일 기존 리브부동산의 브랜드명을 KB부동산으로 변경한다. KB부동산은 지도를 기반으로 부동산 정보를 한 곳에 모아 보여주는 부동산 정보 플랫폼이다. KB시세, 실거래가, 매매가격, 공시가격, 인공지능(AI) 예측시세, 빌라시세 등 다양한 가격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향후 고객 맞춤형 신규 서비스를 선보여 고객 중심 플랫폼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홍원식 회장-대우위니아그룹 상호 협력 이행협약 체결

대우위니아, 홍 회장 구원 투수로 등판할까

(남양유업)

대우위니아에 조건부 경영권 매각 "기업회생 노하우 장점" 영향 미쳐 남양유업 경영 정상화 위해 협력 법원 판결 때문에 무효될 가능성도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대우위니아그룹과 상호 협력 이행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경영권 분쟁 중인 한앤코와의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뉴스시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대우위니아그룹과 상호 협력 이행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영권 분쟁 중인 사모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와의 소송에서 이기면 회사 경영권을 대우위니아그룹에 넘기기로 한 것이 핵심이다. 법원이 홍 회장의 남양유업 주식 처분 금지와 임시주총 의결권 행사 금지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등 소송에서 불리해진 홍 회장이 대우위니아그룹을 구원투수로 등판시켜 분위기를 전환을 꾀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우위니아그룹과 '조건부 약정' 체결

이번 상호 협력 이행협약을 통해 홍 회장과 대우위니아그룹은 남양유업 경영 정상화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한앤코와의 경영권 분쟁이 진행 중인 만큼, 우선 남양유업

의 경영 정상화에 협력하고 경영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제3자에게 법적으로 주식 양도가 가능해질 경우에 한해 홍 회장 측이 대우위니아그룹에 주식을 양도하고 경영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조건부 약정'을 체결했다. 다만 대우위니아그룹이 향후 대주주들에게 지급할 매각 대금이나 주식매매계약 체결일자 및 범위 등 구체적인 계약 조건은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우위니아그룹은 남양유업의 법률 준수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인스 체계 구축, 대리점들과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구축,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재무·회계 시스템 구축, 고객 신뢰도 향상 등 경영정상화 및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여러 문제들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남양유업 측은 "회사 경영 정상화를 위한 대우위니아그룹의 업무 범위는 최종적으로 대우위니아그룹이 경영권을 인수하기 전까지는 남양유업의 경영공백을 방지하고 경영을 정상화하는 목적에 한한 것"이라며 "향후 대주주 측에서 한앤코에 주식을 양도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우위니아그룹은 기존 계획을 중단하고 협의를 거쳐 대우위니아그룹 측 인원의 해촉 등을 진행하고 문제없이 협약을 종결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소송에 어떤 영향 미칠지가 관전포인트

이제 관심은 대우위니아그룹이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면서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쏠리고 있다. 앞서 홍 회장은 5월 27일 한앤코와 남양유업 보유 지분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을 맺었다가 9월 1일 한앤코가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를 일방 통보한 바 있다.

이에 한앤코는 법원에 홍 회장의 남양

유업 주식 처분 금지와 임시주총에서의 결권 행사 금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렇듯 법원이 연이어 한앤코의 손을 들어주자 홍 회장 측이 이를 타개할 수 있는 조력자로 제3자인 대우위니아그룹을 끌어들이겠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앤코보다 더 좋은 조건에 회사를 양도할 수 있는 수요자가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소송에서 반전을 꾀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히 대우위니아그룹이 2001년 삼원기업(현 대우에이피)과 2018년 동부대우전자를 인수한 이후 재무 구조를 개선해 흑자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등 '기업회생 노하우'를 갖고 있는 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홍 회장 측은 "대우위니아그룹은 남양유업의 구성원들 모두와 상생하고 남양유업을 한 단계 도약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회사"라며 "남양유업이 처한 현재 상황 등을 함께 타개하기로 했다"고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미 법원이 홍 회장의 남양유업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상태인 만큼, 제3자와의 계약이 체결됐더라도 무효로 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재즈트리오와 협연하고 있는 아쟁 연주자 정미정(가운데 앞쪽). 사진제공 | 시흥시

"코로나에 지친 시흥시민 힘내세요" '일상회복 콘서트', 뜨거운 반응

시민 100여 명 참석...신인선 등 흥겨운 무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을 위로하는 공연이 경기 시흥시에서 열렸다.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20일 오후 5시 경기 시흥시청 대강당에서 시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 일상회복, 다시 함께 콘서트'를 주최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의 삶을 위로하고 다시 용기를 얻어 내일을 준비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는데 전통음악과 재즈, 대중음악 등 다양한 장르가 함께 어우러지는 흥겨운 무대였다.

행사 사회는 요즘 대표곡 '신선해'와 각종 음악, 골프 프로그램 출연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가수이자 뮤지컬 배우인 신인선이 맡아 재미있는 말쑤씨와 노래 실력으로 관객의 인기를 독차지했다.

공연을 기획한 아쟁 연주자 정미정은 재즈 트리오의 반주에 맞춰 'Autumn Leaves(고엽)'를 연주하고, 판소리 춘향가 중 한양간 이몽룡을 따라가고 싶은 춘향이의 마음을 노래한 '갈까보다'를 국악인 남상일의 창과 함께 아름다운 선율로 선사했다.

이어 남상일은 KBS '불후의명곡'에서 불려 히트를 친 최백호의 '남만에 대하여'를 국악 스타일로 잔잔하게 뽑아내고 구수한 입담으로 인기를 모았다. 그는 신인선에 대해 "노래와 춤 솜씨는 물론이고 예의가 아주 바른 청년"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신인선은 뮤지컬 '지킬앤드라이드'의 명대사 '지금 이 순간'을 소개하며 "지금까지 1만 번은 불렀을 것 같은데 코로나로 힘든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위로가 필요한 때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대표곡인 '신선해'를 물개 박수와 흥겨운 반주에 맞춰 노래했다. 조항조의 '고맙소'를 부르기 전에는 "이 노래를 할 때마다 어머니가 생각나는 특별한 노래"라고 말했다.

재즈보컬 이지은은 작곡가 바비 투륨이 펜실베이니아에서 로스앤젤레스로 미 대륙을 횡단하던 중 영감을 얻어 만든 'Route 66'이라는 재즈곡을 선사했다. 국악 퍼포먼스그룹 '타고'는 북 반주로 흥을 고조시키며 공연을 마무리했다.

이날 문화행사를 마련한 시흥시의회 안돈의 의원은 "힘든 시기를 견디고 일상으로 회복하는 단계에서 시민에게 힐링의 시간을 드리고 싶었다"며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 것도 기쁘다"고 말했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일론 머스크, 한국 테슬라 고객에게 사과

20일 서버 문제로 세계 각지 테슬라 운전자들 항의

글로벌 1위 전기차업체 테슬라의 애플리케이션이 20일 서버 문제로 먹통이 되면서 세계 각지의 테슬라 운전자들이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테슬라는 앱을 통해 원격으로 차량 문을 열거나 시동을 걸 수 있는데, 이날 한때 앱 연결이 잘 되지 않으면서 수많은 테슬라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글이 트위터에 올라왔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한 테슬라 운전자 오전 6시 21분경 트위터에 영문으로 "저는 지금 대한민국 서울에서 테슬라 iOS 앱을 통해 모델3를 연결해야 하는데 500 서버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아마 이전 전 세계적인 이슈인 것 같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그러자 3분 후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가 "체크 중"이라고 답글을 썼고, 이 글은 전 세계에 리트윗됐다.

이후 5시간쯤 지난 오전 11시 11분경 머스크는 "이제 앱이 정상적으로 작동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로 네트워크 트래픽을 늘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라는 사과글을 트위터에 남기면서 화제가 됐다. 원성열 기자

롯데케미칼 '의료용 PP·난연ABS' 등 2021년도 세계일류상품 6종 선정

6종 모두 '현재세계일류상품' 선정 "스페셜티 소재 시장에 집중할 것"

롯데케미칼(대표이사 김교현)의 6개 제품이 '2021년도 세계일류상품'에 선정됐다.

세계일류상품은 기업 경쟁력 강화와 수출 품목의 다양화·고급화를 통해 미래 수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운영하는 공식 인증제도다. 글로벌 시장점유율 5위 이내인 '현재 세계일류상품'과 향후 7년 내 현재일류상품 가능성이 높은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으로 나뉜다. 롯데케미칼은 금번 선정된 6종을 포함해 총 15종의 세계일류상품을 보유하고 있다.

'2021년도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된 롯데케미칼 제품은 PC계 감수제용 폴리 에틸렌글리콜, CPE용 베이스파우더 H



'2021년도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된 롯데케미칼의 제품들. 사진제공 | 롯데케미칼

DPE, 의료 포장용 PP제품, 폴리프로필렌 열접착수지, 자동차용 ASA 수지, 난연 ABS 수지 등 총 6종으로, 모두 '현재 세계일류상품'에 포함된다.

롯데케미칼의 의료 포장용 PP(Polyp

ropylene)는 생체적합성 테스트를 통과한 안전한 제품으로, 의료용 일회용품 및 포장재로 널리 적용이 가능하다. 의료용 플라스틱 시장은 포장, 규격, 승인 절차가 까다로워 범용제품 대비 진입장

벽이 높은 스페셜티(고부가가치) 분야다. 최근 글로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의료·위생용품 수요가 지속 확대됨에 따라 시장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PC계 감수제용 폴리 에틸렌글리콜은 콘크리트 혼화제의 첨가제 중 하나인 감수제의 주원료이다. 콘크리트에 투입되는 물 사용량을 저감하고, 강도와 유지력을 향상시켜 건설 공사에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축용 스페셜티 제품이다.

롯데케미칼은 "해당 제품들은 건축, 의료,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 분야 등에 각각 적용되는 스페셜티 소재로서, 우수한 물성과 품질로 글로벌 시장에서 정상급 제품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높은 소재경쟁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고객 맞춤형 제품 확대를 통해 글로벌 고부가 스페셜티 제품시장을 적극 공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CJ ENM, '라라랜드' 제작사 인수...해외공략 가속화

엔터테인먼트 지분 80% 인수

CJ가 영화 '라라랜드'로 유명한 할리우드 콘텐츠 제작사를 인수하기로 했다. CJ ENM은 엔터테인먼트의 지분 약

80%를 7억7500만 달러(약 9200억 원)에 인수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엔터테인먼트는 글로벌 스포츠·엔터테인먼트 그룹 엔터테인먼트의 산하 스튜디오다. 라라랜드 등 영화는 물론 영국 BBC의 '킬링 이브' 등의 드라마를 제작, 유통했다. CJ ENM은 "글

로벌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다"고 설명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이달 초 '문화'와 '플랫폼', '윌니스', '지속가능성' 등 4대 성장엔진을 발표하면서, 2023년까지 10조 원을 투자한다고 밝힌 뒤 나온 대규모 투자라는 점에서도 관심을 끈다. CJ는 문화 분야에서 CJENM 엔터테인먼트 부문이 스튜디오 강화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 공

략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업계는 전 세계 문화 콘텐츠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가진 미국에서 콘텐츠를 제작, 유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면서, CJ ENM의 해외 시장 공략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